

건설천년대계(建設千年大計) (주)동양고속건설

68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고속버스 여객 운송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69년 진출한 종합건설업을 근간으로 하여 지난 34년간 국내 운송업계와 건설업계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난히도 경기의 부침이 심했던 우리나라 건설산업 환경속에서도 경영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통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발전해 온 동양고속건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과 내실 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양고속건설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앞선 경영, 합리적 경영

지난 97년 예고 없이 찾아온 IMF의 외환위기 속에서 동양고속건설은 어느 해보다도 우수한 경영 실적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이는 그간에 꾸준히 추구해 왔던 동양고속건설의 경영합리화 이념을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 현장관리를 통한 원가관리 및 정보 공유

를 통한 기업 구성원 모두의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은 기업의 구조조정만이 외환위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들이 팽배하였던 그 시기에 더욱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IMF 시기에 건설경기의 하강국면에 접어든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동양고속건설은 철저한 공정 관리 및 품질관리의 추진 및 현장별, 공종별 사전원 가심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 외형 위주에 성장보다는 그간 동양고속 건설이 꾸준히 추구하여왔던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자금은 기존의 차입금 상환을 통하여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화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어려운 IMF 경제 상황에서도 8년 연속 흑자경영의 행진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 매출액, 당기 순이익 등 제반 영업지표의 증가 및 부채비율, 유동성, 금융비용·부담률 등 기업 주요 재무지표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이러한 합리적 경영의 결과로 동양고속건설은 건설 업계에서는 드물게 부채비율 218%, 자기자본 비율 32% 우량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또 IMF 시기의 일회성 노력이 아닌 내실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의 실현

동양고속건설은 창립이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최상의 품질로 고객의 만족을 위한 고객 제일주의 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력 축척과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의 만족과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 충실히 수행한다는 기업의 이념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부문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결국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승된 기업 가치는 다시 조직원 개개인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로 순환되는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근간을 둔 기업가치의 상승을 경영기조로 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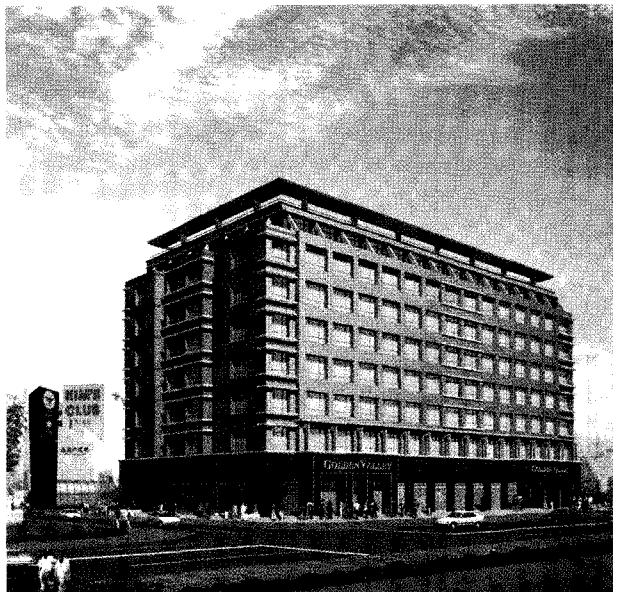
바르게 성장하고자하는 기업

단순한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익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며 '빠르게' 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추구하는 동양고속건설은 현장별 자산관리 및 독립 채산제도를 채택, 자금 운영의 최적화를 통한 무차입 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양고속건설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난 98년부터 DATIS 21 전담팀을 구성 사내 지식경영제도를 도입,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식경영 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1단계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시스템의 안정화 추진, 3단계 지식경영제도의 구축 및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영제도의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1단계로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사내 종합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 하였고, 2단계는 2000년부터는



골든밸리

업무 전산화의 정착, 시스템의 보완, 임원정보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3단계 추진 사업으로 정보기술 산업(Information Technology) 환경과 관리기법에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임원정보 시스템 보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지식경영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사내·외에 산재된 지식들을 공유 및 축척을 통하여 지식의 자산화를 추구하고 전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전 직원을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의 양성 및 새로운 사업 영역의 기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보다 다소 앞서 지식경영 제도의 추진에는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기업의 기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 지식경영 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지식관리 프로세스의 정립뿐 아니라 전자결제제도의 도입도 준비중에 있다.

동양고속건설은 올해 들어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의 후속 사업으로 책임경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내 Data Warehousing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사업 영역별 경영 방침과 연계하여 사업별 핵심성공 요인(CSF) 및 지표별 측정 지표인 주요성과지수(KPI)를 도출하여 사업본부별 직원 개인별 업적평가와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양고속건설은 공정관리 및 원가관리의 전산화 추진, 턴키 및 CM 사업능력 구축하여 해외 건설사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인류의 생존 과도 직결되는 환경사업부문에도 신기술 개발 및 취득을 통한 좀더 다각적인 사업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동양고속건설은 향후 지식경영 등의 신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전문화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에 역량을 집중, 고수익성 사업부문에서의 수주능력 경쟁력 배양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 새로운 비상을 준비

군산항 제 2부두 축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2001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바다의 날 기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여 주택건설사업뿐만이 아니라 도로, 항만, 철도 등 SOC사업 경험을 대내외에 인정받기도 하였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목표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념으로 철저한 내실위주의 경영관리를 펼쳐온 동양고속건설. 2000년 자본금 175억, 당기순이익 72억원의 뛰어난 경영실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내실경영은 IMF위기인 98년과 99년에 각각 17억원과 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룩하며 8년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며 업계의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대변하듯 상장건설사중 꾸준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지중이다.

금년 상반기 일산의 라파크와 트레밸 I, II, 트레밸하우스 등을 성공리에 분양완료한 동양고속건설은 지금까지 관공사 위주의 사업에서 민간공사 위주로의 사업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 말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유럽풍의 최고급아파트인 동양 파라곤 을 분양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택건설영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견고한 역사를 가진 동양고속건설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최상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운송업계의 선발주자로서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업의 회사 이미지가 강했었다. 그러나 기업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출비중이 건설 80%, 운수 20%로 고속버스의 선발주자로서의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69년부터 종합건설업에 진출하여 30여년간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토목 부문과 주거, 비주거용

을 망라한 건축 부문에서 꾸준히 기술경쟁력을 키워온 중견 건설업체임이 확인하다.

특히, 토목공종의 항만과 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업체를 능가하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001년 5월 31일 바다의 날에 국가 항만시설 건설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동양고속건설은 주택사업의 차별화로 'Home-Office-Sports'를 연계하는 'One stop-life town' 등 신개념의 주거문화를 창조하는데 또 한번의 선발주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양고속건설이 돋보이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경영의 과학화, 합리화를 통해 8여년동안 흑자 경영 행진을 지속해옴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켜왔다는 것이다.

68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한 고속버스 여객운송업과 이듬해 69년 진출한 종합건설업을 근간으로 34년의 견고한 역사를 가진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창립 이후 34여년간 건실한 성장 경험과 향후 전개될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가치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중견 건설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기업',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기업', '깨끗한 환경을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관련산업의 다양한 부분에서 꾸준한 기술개발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건설천년대계를 꿈꾸는 동양고속건설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 ☺